

분만 직후 어머니의 신생아 접촉이 모아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 미 혜¹⁾ · 김 미 경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모아관계는 모아 양자 간의 상호교류 혹은 양각적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Barratt & Roach, 1995),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밀접한 최초의 관계로 아기의 입장에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의 충족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관계를 습득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Symanski, 1992). 건강한 모아관계는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며, 아기가 태어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전되는 습득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모아관계와 모성행위는 신생아의 자극과 그 외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산욕 초기에 모아접촉은 모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애착을 형성하는데 유의한 관계가 있다(Barratt & Roach, 1995).

애착은 인간 또는 동물이 자신과 다른 특정인 사이에 형성하는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로서, 부모와 자녀, 특히 모성과 영아사이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애착은 영아의 생존과 성격, 특히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하고 만일 영아, 모성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적절하고 안정된 애착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여 심지어는 애착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An, 1999). 애착과정은 임신 중에 시작되어 산욕기 초기에 강화되고 애착과정에 의해 영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lsky, Gilstrap & Robin, 1991).

출생 직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은 영구적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과 영아의 성장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Klaus & Kennel, 1976).

신생아에게 어머니가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는 출생 당시부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음성이나 얼굴표정, 몸동작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어머니는 그러한 신생아의 신호에 반응함으로써 신생아의 경험을 확장해 주고 신생아의 능력에 환경을 제공해 주어 이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다(Robson, 1970).

아기의 신체건강과 지적발달, 언어발달, 인격과 정서발달 및 학업 준비도 등에 미치는 모아관계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선행연구(Belsky et al., 1991; Bigner, 1985; Tulman, 1980)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신생아는 내적조절 혹은 조화와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의 유지(0-3개월)로부터, 생물학적 세계의 깊고 풍부한 감각을 통해 1차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정서적 애착의 형성(2-7개월), 그리고 융통성 있고 광범위한 여러 감정적 체계와의 우연적 혹은 상호적 상호작용(3-10개월)을 통해, 복잡적이고 조직화된 그리고 통합된 행동적 정서적 양상(9-24개월)의 방향으로 발달적 구조를 이룬다(Greenspan & Porges, 1984).

산후 2개월 동안에 모아의 애착이 형성되고 초기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모아 모두에 있어 이 2개월 간이 중요한 시기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산욕기 처음 24시간이내의 모아조기 접촉 유무가 신생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신생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모성 감정의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Loder milk & Perry, 2003). 또한, 신생아는 대부분의 욕구를

주요어 : 접촉, 모아애착행위

1)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문화병원 분만실 수간호사

투고일: 2005년 2월 23일 심사완료일: 2005년 4월 18일

어머니로부터 충족시키게 되고 이러한 욕구충족을 통하여 신뢰감을 배우게 되며, 생후 6개월까지의 모아관계 형성은 아기의 인지 및 사회, 심리적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Belsky, Gilstrap & Robin, 1991).

신생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가족구성원 및 타인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출생 후 신생아의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자녀의 애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에게 형성된 애착정도는 정신 및 신체 건강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사는 어머니의 역할수행을 돕고 어머니와 신생아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분만과 관련해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병원이 정책적으로 모유수유를 장려하는 등 모아간 조기접촉을 유도하여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형성을 촉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에서는 부모와 신생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시각접촉과 피부접촉은 애착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요구보다는 신생아를 위한 신체적 요구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신생아실은 폐쇄되어 있거나 방문을 제한하고 신체적 접근을 금하여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분만 직후 모아의 건강한 상호관계 수립을 위한 모성과 아동을 돌보는 간호사의 지지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모아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모아상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모아상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거나, 그 중재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Lee, 2003). 특히 분만 직후 어머니의 신생아 접촉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상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분만 직후 어머니와 신생아 접촉이 모아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산욕 초기 모성과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분만직 후 어머니의 신생아 접촉이 모아 애착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아의 조기접촉이 어머니의 동일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모아의 조기접촉이 어머니의 상호작용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가설

- 제1가설 :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갖지 않는 대조군 간에 동일시 행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제2가설 :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갖지 않는 대조군간에 상호작용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용어정의

- 모아애착행위

어머니가 신생아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행위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신생아와 접촉했을 때 관찰되어지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pley, Priscilla 와 Sharon(1976)이 개발한 모아 애착행위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 Pretest | Intervention | Posttest |
|--------------------|--------------|----------|
| Experimental group | X | O |
| Control group | | O |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분만직 후 모아의 접촉이 모아 애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M종합병원에서 정상 신생아를 분만한 건강한 초산모 62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분만 후 3일 이내의 초산모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표집하였다. 대조군은 연구대상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대로 분만 직 후 모아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퇴원 시까지 면회시간에 한하여 유리창 밖에서 보도록 허락된 집단이며, 실험군은 분만직후 30분 이내에 모아접촉이 있었으며, 수유실에서 자의적인 모아접촉이 제공된 집단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은 연구대상 순서대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같은 비율로 하였으며, 분만 직후 모든 산모에게 신생아 직접 접촉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수집을 하였으므로 대조군을 우선 배정한 다음, 실험군을 대상으로 실험처치를 제공하였다. 실험확산 효과를 막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알리지 않았

다. 본 연구의 최초 대상자는 실험군 31명, 대조군 31명이었으나 수유실 방문이 불성실한 산모 1명을 제외하여 실험군 31명, 대조군 30명으로 총 61명이었다.

실험처치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부산 소재 일 병원에서 2004년 8월 25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산모가 관찰대상이 됨을 인지함으로써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행동관찰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자와 분만실 수간호사가 동시에 관찰지를 사용하여 직접 관찰법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 모아의 접촉방법

실험군의 경우 모아의 조기접촉은 분만직 후 30분 이내와 수유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다.

- 분만직 후 초산모는 신생아 처치가 끝난 분만 후 30분 이내에 신생아를 초산모에게 안겨 주어 산후처치가 끝나는 20분-30분동안 접촉하도록 하였다.
- 수유실에서의 신생아 접촉은 초산모에게 베타 스크럽으로 손을 씻고 신생아와 접촉하게 하여 신생아의 감염을 예방하였다. 이때 모아의 접촉은 산모가 자의적으로 접촉을 시작하고 종료하도록 하였으며, 모아의 접촉 횟수는 2-3회 정도였다. 모아의 접촉시간은 제한하지 않았으며, 1회당 평균 20-30분 정도였다.

• 관찰시기

대조군은 퇴원 시, 실험군은 분만 24-48시간 이내에 산모의 애착행위를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관찰 시에는 산모의 애착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았다. 관찰은 연구자와 분만실 수간호사가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연구자와 분만실 수간호사간의 관찰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료수집을 하기 전 15일 동안 연구도구에 대해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10명의 산모와 아기를 대상으로 연구에 사용될 연구도구에 의해 관찰 후 평점을 하였다. 연구자와 분만실 수간호사간의 관찰 일치도는 97%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Cropley 등(1976)이 개발한 모아애착 측정도구로, 어머니의 애착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어머니가 신생아와 접촉했을 때 관찰되어지는 행동을 공식화한 사정도구로서, 이 도구는 동일시 행동(외모와 기능, 상태의 평가)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상호작용의 양상(언어적 접촉, 시각적 접촉, 피부적 접촉)을 측정하는 11문항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에 의해 각 항목의 행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1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11.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t-test와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두 집단의 외모와 기능, 상태의 평가, 언어적, 시각적, 피부접촉에 대한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모와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동질성을 나타내었다. 즉, 산모의 검정연령, 태매기간, 현존 자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 | Experimental G. (N=31) | | Control G. (N=30) | | χ^2 or t | p |
|-----------------|------------------------|------------------------|-------------|-------------------|-------------|---------------|-------|
| | | N(%) | Mean(SD) | N(%) | Mean(SD) | | |
| Newborn Sex | Male | 17(54.8) | | 18(60.0) | | 0.163 | 0.797 |
| | Female | 14(45.2) | | 12(40.0) | | | |
| | Wt. | | 3.45(0.48) | | 3.38(0.33) | 0.704 | 0.423 |
| | Ht. | | 48.08(1.44) | | 47.77(1.33) | 0.680 | 0.577 |
| Mother | Age(year) | | 29.13(3.09) | | 29.24(3.19) | -0.132 | 0.672 |
| | Gestational age(month) | | 39.57(1.28) | | 39.51(0.99) | 0.185 | 0.712 |
| | Number of child | 0 | 199(63.3) | 15(51.7) | | 0.854 | 0.653 |
| | | 1 | 9(30.0) | 11(37.9) | | | |
| | | 2 | 2(6.7) | 3(10.3) | | | |

다. 또한, 신생아의 성별, 체중, 신장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가설검정

• 제1가설 검정

제1가설인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동일시 행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외모와 기능에 대한 애정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이 평균 3.38점으로 7개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조군의 경우 평균 1.97점으로 평균 2개 문항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 상호간 외모와 기능에 대한 애정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3.21$, $p<.01$)<Table 2>. 또한, 두 군의 외모와 기능에 대하여 평균 편차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3점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점수의 분포는 3점을 기준으로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조군의 경우 1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와 기능에 대한 점수도 실험군에 비하여 대조군의 경우 낮게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직 후 접촉기

회가 많을수록 외모와 기능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한편,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갖지 않는 대조군 간에 상태의 평가에 대한 애정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실험군이 1.56점으로 3개 문항 중 2개 문항 정도에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조군의 경우 평균 0.50점으로서 평균 1개 문항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 상호간 상태의 평가에 대한 애정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4.04$, $p<.01$)<Table 2>. 두 군의 상태의 평가에 대하여 평균편차를 산출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1점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의 경우 0점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태의 평가에 대한 점수도 실험군에 비하여 대조군의 경우 낮게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직 후 접촉기회가 많을수록 상태의 평가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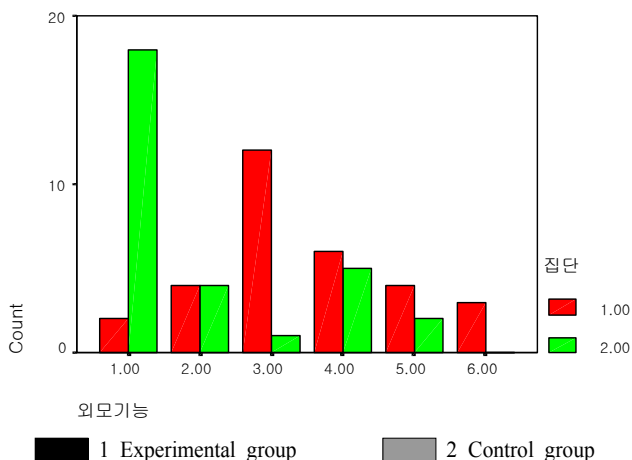
• 제2가설 검정

제2가설인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접촉을 갖지 않는 대조군 간에 상호작용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접촉을 갖지 않는 대조군 간에 언어적 접촉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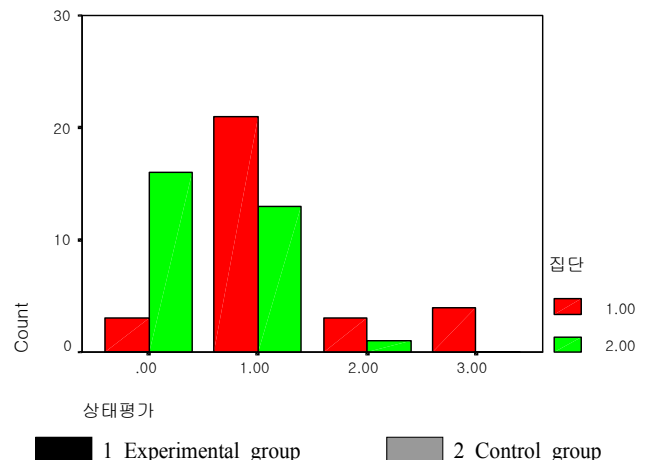
<Table 2> Differences of appearance and function, evaluation of condition, verbal contact, visual contact and skin contact according to group

| Group | appearance and function | | evaluation of condition | | verbal contact | | visual contact | | skin contact | |
|--------------|-------------------------|---------|-------------------------|---------|----------------|---------|----------------|--------|--------------|--------|
| | M(SD) | t-test | M(SD) | t-test | M(SD) | t-test | M(SD) | t-test | M(SD) | t-test |
| Experimental | 3.38(2.01) | | 1.56(1.37) | | 0.78(0.61) | | 1.56(0.80) | | 3.28(2.70) | |
| Control | 1.97(1.40) | -3.21** | 0.50(0.57) | -4.04** | 0.13(0.35) | -5.20** | 1.03(1.00) | -2.31* | 1.37(2.08) | -3.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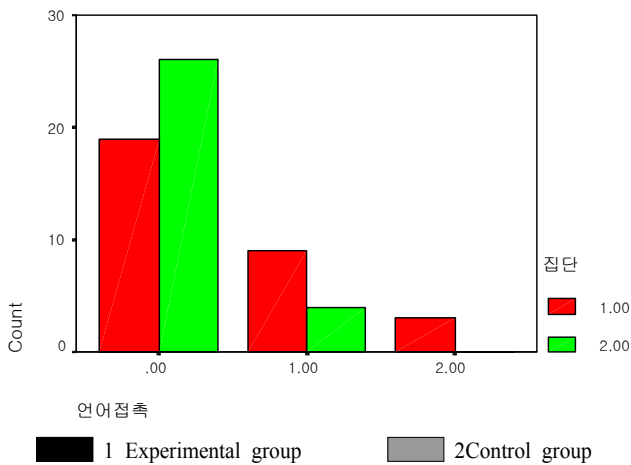
* $p<.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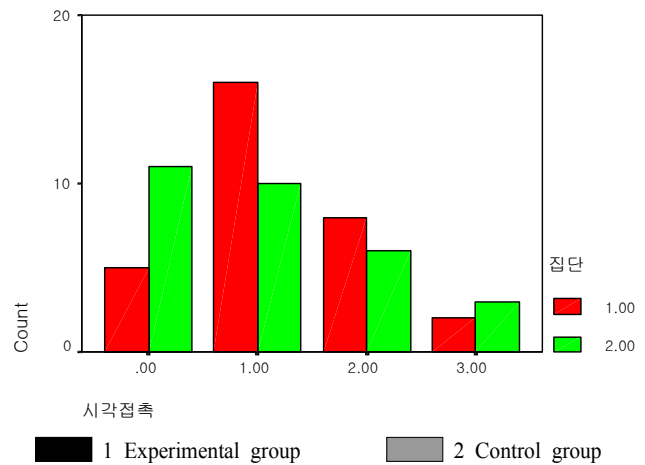
<Figure 1> Degree of appearance and function



<Figure 2> Evaluation of condition



<Figure 3> Degree of verbal co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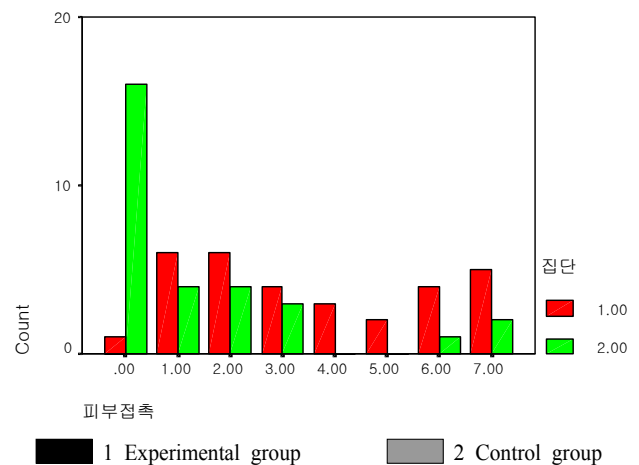
<Figure 4> Degree of visual contact

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군의 경우 평균 0.78점으로 3개 문항 중 1개 문항 정도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의 경우 평균 0.13점으로 낮게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 상호간 언어적 접촉에 대한 애정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또한, 두 군의 언어적 접촉에 대하여 평균 편차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0점이 실험군의 경우 61.3%, 대조군의 경우 8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언어적 접촉에 대한 점수도 실험군에 비하여 대조군의 경우 낮게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직 후 접촉기회가 많을수록 언어적 접촉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한편,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접촉을 갖지 않는 대조군 간에 시각적 접촉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군은 평균 1.56점으로 4개 문항 중 2개 문항 정도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의 경우 평균 1.03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 상호간 시각적 접촉에 대한 애정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2.31$, $p<.05$)<Table 2>. 또한, 두 군의 시각적 접촉에 대하여 평균 편차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1점이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조군의 경우 0점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각적 접촉에 대한 점수도 실험군에 비하여 대조군의 경우 낮게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직 후 접촉기회가 많을수록 시각적 접촉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분만직 후 신생아 접촉을 갖는 실험군과 접촉을 갖지 않는 대조군간에 피부 접촉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군의 경우 평균 3.28점으로 8개 문항 중

4개 문항 정도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의 경우 평균 1.37점으로서 평균 2개 문항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간 피부접촉에 대한 애정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3.14$, $p<.05$)<Table 2>. 또한, 두 군의 피부접촉에 대하여 평균편차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1점과 2점이 각각 19.4%로 높았으며, 대조군의 경우 0점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접촉에 대한 점수도 실험군에 비하여 대조군의 경우 낮게 나타나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직 후 접촉기회가 많을수록 피부접촉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Figure 5> Degree of skin contact

논 의

신생아와의 관계형성의 첫 단계인 동일시(identification)관계는 애착을 형성하는 행동의 일부로, 신생아를 인간으로 인식

하는 과정이다(Barratt & Roach, 1995). 동일시 과정 이후 탐색적인 접촉에서 차츰 애정을 가진 결합이 발생하는 동안 폭넓은 능동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은 미소(social smiling), 시각적 접촉(eye to eye contact), 피부접촉(skin to skin contact), 언어적 접촉(social vocalization)등을 포함한다(Kim, 1994).

본 연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에서 외모와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모두에서 높은 반응을 보여준 것은, Kim(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기능에 관한 항목에서는 차이를 나타냈으나, 기타 외모와 상태에 관한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Chao(1983)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모의 신생아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 동일시 과정은 애착을 발전시키는 행동의 일부이며, 신생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Ludington-Hoe (1977)에 의하면 동일시 행동과정은 분만 전에 시작되어 임신 말기에 강해지며 신생아의 외모, 성, 크기와 상태, 신체의 기능(울음, 배변, 배뇨 등)과 신체 부위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동일시 행동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Chao(1983)는 신생아의 외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은 산육기 첫날에 정점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기접촉이 시도된 경우 아기에 대한 외모와 기능에 관심이 많고, 아기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평가하고 상태의 변화를 언급할 수 있으므로,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은 분만 직후에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상호작용 양상에서 언어적 접촉, 시각적 접촉, 피부 접촉 모두에서 높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언어적 접촉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Lee와 Kim(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Cropiey 등 (1976)의 연구에서도 58%의 산모가 신생아와 이야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신분석 이론가나 사회학습 이론가는 신생아를 잠만 자고 포유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고 있으나, Bowlby와 Brazelton은 아기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출생시부터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Tulman, 1980). 그러나, 출생 후 이루어지는 신생아의 모아관계는 아기의 신호에 엄마가 반응하고 또한 엄마에 의해 아기가 반응하는 끊임없는 상호교환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동적 조절과정으로, 모아가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하는 대화체계의 모든 발생, 시각적 응시, 몸동작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Cho, 1993). 따라서, 모아관계는 출생직 후부터 일정기간의 민감기를 거쳐 성립되며 엄마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고 다양하므로, 어머니와 아기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모아의 상호작용은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시각적 접촉에서 나타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Lee와 Kim(1981)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Kim(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시각적 접촉은 흔히 모아 간에 발생하는 첫 상호작용 중의 하나로(Curry, 1987), Robson(1970)은 그의 연구에서 눈의 접촉은 신체적 접촉의 준비단계로서 초기에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수락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모아는 서로가 눈길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 어머니의 눈과 신생아의 눈이 교차해서 만나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는 자세를 취하는 어머니가 만삭아의 경우 많다고 지적했으며, 시각적 접촉을 시도하는 어머니가 54%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신생아는 생후 수분부터 며칠 사이에 감각기관의 발달로 통일된 행동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감각지각 능력은 성인에 가깝다. 즉, 신생아는 출생직 후부터 시각반응을 보여 눈과 눈을 마주보는 시각 접촉으로 엄마로 하여금 아기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하고, 적극적 감정을 갖게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인식시키는 작용까지 한다. 그리고 신생아는 소리에 의한 잘 반응한다. 여러 감각기관 중 촉각에 대한 반응은 가장 잘 발달한 감각기관으로서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때의 친밀감, 따뜻한 애무, 젖 물리기 등은 아기에게 최고의 위안이 된다(Cho, 1993). 또한, Ziegel과 Cranley(1978)은 이러한 시각적 접촉은 모아의 관계형성의 시작과 애착의 발달에 중요하며, 상호간의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눈과 눈의 접촉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아의 정서적 결속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피부접촉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Kim(1993)의 연구결과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Kim(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애착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로 형성되는 감정적인 관계로서 출생 후 수일 이내인 민감시기의 접촉과 상호작용은 애착적 결속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결속은 영원하고 이 과정의 성패는 부모로서의 능력을 결정짓는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한다(Symanski, 1992). 모아상호작용은 비교적 단시간(수시간 또는 수일간)에 급속히 성립하는 것이며, 신체적 접촉(피부와 피부의 접촉, 수유, 눈과 눈맞춤, 안아주기, 애무)에 촉진되는데, 최근의 피부와 피부의 접촉은 어머니가 손끝으로 신생아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세고 몸을 살피게 되며, 이것은 어머니가 신생아를 전체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재확인하는 것이다(Lodermilk & Perry, 2003).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이 진전되는 지표는 어머니의 접촉하는 태도에 그 특징이 있으며, 초기의 탐색적인 적은 접촉에서 차츰 애정을 가진 결합이 발달하는 동안 능동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Schneider, 1997). 또한, 인간에 있어서 접촉은 출생이후 전생을 통해 평안함을 느끼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산육기 동안에 촉각 접촉을 박탈당한 산모는 신생아에 대한 책임감이

적고, 간호에 대한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Barratt & Roach, 1995). 따라서, 모아사이에 의사소통의 첫 행동으로 정의되는 어머니의 만짐은 어머니가 신생아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산육초기에 모·아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해 모·아애착행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육초기에 모성과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모아애착행위 증진을 위한 지지적 간호중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분만 직후의 신생아 접촉이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건강한 모아관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04년 8월 25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정상 분만한 건강한 산모 61명(실험군 31명,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애착행위를 직접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 중 외모와 기능에 대한 행동과 상태평가에 대한 행위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았다. 즉, 외모와 기능에 대한 행동은 총 6점 만점에 실험군의 경우 평균점수가 3.38점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평균점수는 1.97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애정정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21$, $p<.01$). 또한, 상태의 평가에서도 총 4점 만점에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1.56점이었으며,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0.50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애정정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04$, $p<.01$).
- 신생아에 대한 상호작용 양상 중 언어적 접촉, 시각적 접촉, 피부 접촉에 대한 행위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았다. 즉, 언어적 접촉은 총 2점 만점에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0.78점이고,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0.13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관심정도를 나타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20$, $p<.01$). 또한 시각적 접촉에서 총 3점 만점에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1.56점으로, 대조군의 평균점수인 1.03점 보다 높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관심정도를 나타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 $p<.05$). 또한, 피부접촉에서는 총 7점 만점에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3.28점이었으며,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1.37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관심정도를 나타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14$, $p<.01$).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분만 직후 모아가 모든 언어적 접촉, 시각적 응시, 몸동작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분만 직후 어머니의 신생아 접촉이 어머니의 동일시 행동

및 상호작용 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기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모아의 상호작용은 불가결한 것으로, 출생 직후 다양한 접촉과 상호작용은 애착적 결속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결속은 영원하고 이 과정의 성패가 부모로서의 능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볼 때, 간호사가 모아애착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모아의 건강한 상호관계 수립을 위한 간호사의 필수적인 역할로 생각되며,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의 개발은 물론 이에 대한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대한 초기 모아 접촉은 본 연구가모아를 한시적으로 관찰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모아상호작용의 각 행동을 행위별로 분석하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분만직 후의 접촉여부만 고려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접촉의 방법에 따른 모아애착의 정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분만직 후 초기접촉이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중재 시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n, D. H. (1999). Attachment of pregnant woman : scientific approach of traditional taegyo. *Korea Taegyo Association, Symposium*, 83-93.
- Barratt, M., Roach, M. (1995). Early interactive processes: Parenting by adolescent and adult single mother. *Infant Beh and Development*, 18, 97-109.
- Belsky, J., Gilstrap, B., Robin, M.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 Psychology*, 27(3), 421-431.
- Bigner, J. J. (1985).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Chao, E. S. (1983). Unique aspect of korean mother- infant interaction across time. *Sigma Theta Tau*, 153, 38(6-7), 1-108.
- Cho, K. J. (1993). *Pattern of change of mater-infant interaction in lowbirth weight infant and normal infan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ropley, C., Priscilla, L., Sharon, P. (1976).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St Louis : The C. V. Mosby Company.
- Curry, M. (1987). *Significance of early physical contact between mother and infant*. St. Louis : The C. V. Mosby Company.
- Greenspan, S. L., Porges, S. W. (1984). Psychology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clinical perspectives on organization

- of sensory and affective-thematic experience. *Child Devel*, 55(1), 49-70.
- Kim, B. S. (1993). *A study on the mother's knowledge of infant caregiving and mother-infant attachment in the early postpartum..*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Kim, J. Y. (1994). *Degree of paternal attachment to infant.*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laus, H. (1978). Personal communicaion, broward county la lech league meeting. *Hollywood*, Dec. 9.
- Klaus, M. H., Kennel, J. (1976). *Maternal-infant bondingL The impact of early separation or loss on family development.* St. Louis : The C.V. Mosby Company.
- Lee, J. H, Kim, J. H. (1981). A Study on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J Korea Acad Nurs* 11(2), 9-10.
- Lee, S. M. (2003). *The effect of nicu-informational education on the perception of their newborn and maternal attachment in the mothers of premature newborn.* Master's Thesis, Inwha University, Incheon.
- Lodermilk, D. L., Perry, S. E. (2003). *Maternity nursing(6th ed).* St. Louis: Mosby Company.
- Ludington-Hoe, S. (1977). Postpartum. *Am.J .Nurs.*, 77, 1117-1174
- Montague, A. (1971). *Touching-the human significance of ski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Robson, K. S. (1970). Patterns and determinant of maternal Attachment. *J of Pediatrics*, 77, 976-85.
- Schneider, E. (1997). Touch communication : The power of infant massage. *Massage Mag*, 68, 40.
- Symanski, M. (1992). Maternal-infant bonding. Prentice issues for the 1990s. *Nurs Miwifery*, 37, 67-73.
- Tulman, L. J. (1980). Theorities of maternal attachment. *Advanced in Nurs Scie*, 3(4), 7-14.
- Ziegel, E., Cranley, M. (1978). *Obstetric nursing 7th ed.* New York : Macmilian Publishing Company.

A Study of the Effects of Behavior Contact in Early Mother-Infant Attachment

Sung, Mi-Hae¹⁾ · Kim, Mi-Kyung²⁾

1)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2) Munhwa Hospital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nursing intervention data base to improve maternal attachment. **Method:** The first group of mothers(control group), experienced their first physical contact with their infants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The second group (experimental group) practiced early initial mother-infant postpartum contact known as the most sensitive period for founding maternal-infancy attach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gave birth to normal infants at M hospital from Aug.25 to Sept.30, 2004. During the same time, data was collected through direct observation, with instruments designed by Cropley et al., to assess the behaviors of normal attachment. The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were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with an SPSS program. **Result:** The group practicing initial mother-infant contact, showed a higher degree of physical and functional bonding than the group experiencing the first contact after discharge from the hospital (control group)($p<.01$). The group practicing initial mother-infant contact, showed higher degrees of bonding attachment assessments than the group experiencing their first initial contact after their discharge from the hospital($p<.01$). **Conclusion:** The group practicing early mother-infant contact, showed more maternal-infant interaction than the group experiencing their initial contact after their discharge from the hospital. These results show that maternal attachment behavior increases according with an early initial mother-infant contact.

Key words : Contact, Mother-infant attachm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ung, Mi-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